

경애하는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평양시의 여러 곳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완공 단계에 이른 **룡라인민유원지**와 **건설중에 있는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먼저 **룡라감동어관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지상관람홀과 공연수조, 과학기술보급실 등 감동어관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지상관람홀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날바다에서부터 감동어관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 감동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이 감동어관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였다.

2층 홀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홀을 수중세계처럼 잘 건설했다고 하시면서 무더운 여름철에 평양시민들을 시원한 바다세계에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동굴형식으로 된 과학기술보급실을 돌아보시면서는 관람자들이 감동어와 상어, 고래를 비롯한 물살이동물들의 생태와 특성에 따르는 여러가지 상식자료들과 흥미있는 정보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꾸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룡라물놀이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물놀이장 주변의 넓은 공지에 조약수조와 물놀이수조, 탈의샤와실을 비롯한 여러 시설들을 더 구비해주어 종합적인 물놀이장으로 변모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탈의샤와실지붕에 롱구장, 배구장, 모래터배구장을 꾸려주면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물놀이와 체육경기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건설일군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던 문제를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아찔하게 높아보이는 물미끄럼대를 바라보시며 사람들이 이것을 제일 좋아할것

이라고 하시면서 꼭 다시 찾아와 인민들이 물미끄럼대를 타는 모습을 보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룡라물놀이장의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었다고 하시면서 분위기가 참 좋다고, 이제 물놀이장이 운영을 시작하면 이곳은 사람들로 쪼개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만점짜리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거듭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지대정리를 동시에 내밀어 전승절전까지 완공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날 완공된 룡라유회장을 돌아보시면서 설비들의 가동정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건설중에 있는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렌트겐촬영실, 수술장, 입원실을 비롯한 연구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건설은 아버지장군님께서 몸소 발기하시고 설계도면까지 친히 보아주시며 특별히 관심하시던 대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유선중앙연구소건축공사를 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것은 립상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있는 의사들과 연구자들이 연구소에 배치하며 유선증과 유선암 치료에 필요한 첨단설비들을 그른하게 갖추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특히 유선증과 유선암을 미리 예방하고 초기에 적발할수 있는 치료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첨단설비들을 잘 갖추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수술장을 비롯한 연구소의 모든 치료실들의 무균화, 무진화를 보장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건설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가

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건설에서 질보장에 선차적 관심을 돌리며 연구소의 특성을 잘 살려 현대적이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유선중앙연구소를 당창건기념일까지 훌륭히 일떠세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평양양말공장과 아동백화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먼저 **평양양말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아버지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심장깊이 새긴 공장의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양말공장의 생산능력을 높임으로써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너자양말직장과 새로 꾸러진 남자양말직장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최신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설비들에서 생산되는 질 좋고 문양고운 양말들을 바라보시며 생산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되고있다는 일군들의 보고를 기뻐해주시였다.

양말포장기앞에 서시어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양말들을 자동적으로 포장하는 작업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서 개별포장과 함께 묶음식포장도 잘해야 한다고 이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공장에서 자체로 생산하여 리용하고있는 포장기의 성능이 대단히 좋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연구개발한 평양기계대학 연구사 조수영의 연구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이어 견본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색깔고운 갖가지 양말들을 바라보시며 인민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평양양말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영화문헌을 보면서 공장에 나와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찾아왔다고 하시며 공장을 돌아보니 정말 만족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아동백화점**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1층으로부터 3층에 이르는 아동백화점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상품가지수와 질, 봉사계획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학용품매대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크레용과 원주필, 수지연필을 비롯한 필기도구들과 그림종이, 학습장 등의 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면서 학용품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2층에 오르시어 아이들을 위한 백화점답게 매대설치를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꼭두그림맞추기와 같이 아이들의 지능개발에 도움을 주는 놀이감매대를 더 설치하는것이 좋겠다고 이리하시였다.

아동내의, 색동옷매대에 이르시어서는 상품을 진렬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떨구지 않고 생산보장하는데 더 큰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장화를 비롯한 아동신발들의 맵시와 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였으며 신발문수표기법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지금 공장마다 신발문수를 표기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데 인민들이 편리하게 우리 식으로 하나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해당 부분의 일군들이 아동상품을 보장하는 단위들의 책임성을 높이고 서로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 매대들마다 기관, 기업소의 명판을 달아놓은것을 보시고 좋은 착상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물동원구, 코스모스머리빈침, 체육기 자체, 꽃매대에 진렬된 상품들도 보아주시면서 제품들의 질과 모양, 색깔 등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아

동백화점과 해당 부분의 일군들이 조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더 잘 복무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평양항역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새로 건설된 1항역공사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평양항역의 1항역사를 짧은 기간에 현대적으로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중앙홀과 복도의 벽체에 대형인조돌을 붙이고 바닥에는 타일을 깔았으며 천정에 간접조명등을 형성하고 장식을 한것을 보시면서는 시공을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잘 하였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새로 건설하게 되는 2항역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고 평양항역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평양항역은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 인것만큼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계획된 공사를 질적으로 잘 할데 대하여 거듭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이어 633호려객기와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께서 리용하신 535호사적비행기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633호려객기에 오르시어 비행기의 기술적특성과 운영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535호사적비행기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535호사적비행기에 오르시어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께서 비행기를 리용하신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면서 사적비행기의 보존과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본사기자

사설 아버이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념원은 빛나게 실현 될 것 이 다

7월의 조국땅에 영원한 태양의 미소 지어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차넘치고있으며 사람들의 마음마다에 그의 생건의 뜻과 유훈을 빛나게 실현할 애국충정이 끓어번지고있다.

이 땅위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사는 강성국가를 건설하는것은 아버지수령님의 뜻이었고 유훈이다.

일찌기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나라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시고 새 사회건설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세계적인 락후와 빈궁이 지배하던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주체강국을 일떠세우신 수령님이시다.

력사에 수령님과 같이 류레없이 간고하고 복잡한 시련속에서, 령이나 다름없는 빈터와 폐허에서 민족의 강성부흥을 위한 모든 토대와 재부를 마련해놓은 절세의 애국자, 희세의 위인은 일찌기 없었다.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당할수 있는 모진 고생을 다 겪으시며 한 나라, 한 민족의 지위와 운명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고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나라를 존엄높은 자주 강국으로 건설하신것은 수령님께서만이 이룩할수 있는 력사의 기적이고 사변이다.

그이의 80여성상의 혁명생애는 《인민》이라는 두 글자와 더불어 빛나는 고결한 한 생이다.

인민위천은 그의 모든 사색과 실천, 활동의 근본조식이고 좌우명이었다. 인민의 운명에 대한 숭고한 책임감을 지니신 그의 무한한 헌신에 의해 인민의 존엄과 리익을 귀중히 여기는 시대적귀감이 마련되고 이 땅위에 사람들의 자주적요구가 훌륭히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가 일떠세게 되었다. 인민들을 하루빨리 남부럽지 않게 잘 살도록 하시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불면불휴의 헌신의 길을 걸고 또 걸으신 수령님이시다. 그의 혁명활동력사는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되고 인민과 혼연일체가 되어 세계적인 변혁을 안아온 인민적수령의 고귀한 행로이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거대한 업적을 남기신 아버지의 성스러운 혁명실적이다.

조국통일은 수령님의 필생의 뜻이고 념원이었다. 그이께서는 외세에 의해 나라가 분열된 때로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민족분열의 비극을 가시기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셨으며 통일성업실현에 고귀한 업적을 남기셨다.

그이께서는 조국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민족단합의 기초로 삼으시고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으로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제도 의 차이를 초월하여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민족구성원들을 통일애국의 길로 이끄신 민족의 아버지, 통일의 구성이시였다.

민족의 통일강령인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하시어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단합된 힘으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자주적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으신 수령님이시다. 그이께서 마련하신 조국통일위업실현의 고귀한 유산이 있어 오늘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빈민족, 반통일책동이 악랄한 속에서도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고있다.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김일성주석의 뜻과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는것은 김정일장군님의 구상이고 의지였다. 그의 확고한 결심과 불면불휴의 애국헌신에 의해 강성국가건설의 새 력사가 도래했고 인민의 리상실현에서 빈이 나는 눈부신 현실이 펼쳐져 국력과 인민의 존엄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의지와 비범한 통일령도에 의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6.15시대가 밝아오게 되었다.

세기를 이어, 대를 이어 절세위인들을 수령으로, 령도자로 모신것은 민족의 크나큰 복이고 무상의 행운이다. 장군님대에 하나하나 자랑찬 현실로, 고귀한 결실로 이루어진 수령님의 필생의 뜻과 념원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해 한치의 드림도, 한결같은 양보도 없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는것이다.

온 민족은 그의 발걸음따라 밝아오는 애국위업의 최후승리의 그날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만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절세의 위인 외국의 인사들이 높이 칭송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 보내여온 축전들을 통하여 여러 나라 인사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끝없는 흠모심을 표시하면서 수령님께서서는 영원히 진보적인들과 함께 계실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브라질자유조국당 부위원장 로자니타 캄보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라도제국주의 동맹을 결성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끄시였다.

그이의 한평생은 조선을 자주적인 국가, 인민대중이 주인된 나라로 빛내이신 희세의 위인의 생애였다.

조선혁명과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그이께서는 세계정치계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시였으며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으시였다.

베를린신문(붉은 조국) 중앙위원회 위원장 알베르트 모레노 로하스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안아오신 김일성동지는 애국주의자의 귀감이시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인류사상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하시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기울으신 그의 로고는 력사에 새겨져있다.

세계인민들과 혁명적당들 그리고 모든 진보력량은 그의 위대한 업적을 격찬하고있다.

스리아통일사회주의자당 총비서 파예즈 이스미일은 력사에는 김일성주석각하와 같은 위인은 없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일성주석각하는 전설적영웅, 강한 투사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이룩하시고 조선인민을 영웅적인민으로, 조선인민군을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칠수 있는 강군으로 키우시였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그이께서 밝혀주신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세계민주정년련맹 위원장 디미트리스 팔미리스는 이렇게 지적하였다.

조선의 자랑스러운 력사는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를 떼어 놓고 생각할수 없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세련된 령도로 조선인민을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탁월한 령도력과 고매한 품모로 하여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인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사상과 리론, 거창한 실천으로 반제투쟁의 본보기를 창조하신분도 그이이다.

그이의 로작들이 수많은 나라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으며 민족의 속망을 실현하는 길에 한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였다.》 김 정 은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는 수령님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 주제 83(1994)년 7월

7월이 왔다.
해마다 맞고보내는 달이건만
아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뜻
깊게 경축한 올해의 7월은 우
리 겨레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대한 존경과 그리
움의 정을 더해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민족자주위업의
길에 나서시어 오로지 나라와 민
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력사의 초행
길을 쉬임없이 이어오신 철세의
애국자,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일 마 전 경 에 하 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20세기
는 명실공히 우리 수령님의 불
멸의 업적과 위인적품모로 빛나
는 김일성동지의 세기였다고 말
씀하시였다.

에서 누구의 도움
이 아니라 자체의
힘이 강해야 나라
를 찾을수 있고 인
민의 행복도 담보
할수 있다는 철학
같은 신념과 의지
를 굳히신 수령님
이시였기에 해방
된 조국땅에 개신
하시여서도 고향
집을 지적에 두신
체 새조선의 국력
강화를 위한 평
길과 강선길을 걸
으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세기!
이것은 조국과 인민의 부름
앞에서는 온갖 모진 시련도,
처절한 싸움도 이겨내시며 겨
레를 위한 혈로를 헤쳐오신
아버이수령님의 한평생이 집대
성되어있는 뜻깊은 말씀이다.
일찌기 애국의 길에서 《지
원》의 높은 뜻 새겨주시던
아버님을 잃으시고 생사를 판
가리하는 혈전의 마당에서는
어머님과 동생을 여의신
아버이수령님이시였다.

건국의 나날 일
부 사람들이 저마
끔 남을 쳐다보며
주의주장을 내세울
때 수령님께서서
새 민주조선건설의
길을 인민의 지향에
맞게 자주적으로,
독창적으로 개척
하시였다.

일제의 학정아래 수난받는 겨
레를 구원하기 위한 길에는 사
랑하는 전우들을 이국의 땅에
맡아만 하는 모진 피로움도
있었고 실한종 휩쓰는 한지에서
적의 포위속에 든체 의식이 희
미해지는 처절한 고통도 있었으
니 그 어려운 인생의 고비고비
마다에서 수령님 마음속에 언
제나 가득차있었던 운명의 구
원자를 에레게 기다리는 겨레의
모습이였다.

천검만검의 시련
을 헤쳐야 했던 나
날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창
건되고 세계 《최강
》을 자랑하는 미국
의 무력침공을 격파
한 3년간의 조국해
방전쟁의 승리도 이
룩되였다.

인민이 주된된 새형의 정권도,
세금이 없고 누구나 무상치료,
무로교육을 받는 고마운 인민적
시책도 그 원형은 수령님께서
피어린 항일전투에서 마련하신
것이였다.
총포성이 울부짖는 백두전장

전후에는 벽돌 한
장 성한것이 없었
던 폐허에서 복구건설의 기
적을 창조하시고 다른 나라에서
는 100년이상이나 걸렸다는 사회
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도 단
14년동안에 이룩하시어 이 땅우
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아버이수령님이
시였다.

오늘도 인민을 위한 사랑의 현
지지도길에서 수령님 하신 말씀

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
려주고있다.
나는 위대한 스승이며 어머니
인 인민의 성실한 아들이 되기
위하여 한평생 쉬지 않고 부지런
히 일하였다.
광활한 미래는 위대한 노력을
요구하고있다. 지난날과 마찬가
지로 앞으로도 위대한 스승인 인
민들속에 들어가 부지런히 배우

면서 쉬지 않고 일한다면 우리는
남먼저 광활한 미래를 앞당겨올
수 있을것이다!
수령님께서서 인민이 좋아한다
면 더 바랄것이 없다시며 80여
에도 남모르게 지평기를 드시고
웃은길 마른길 가림없이 현지지
도의 길을 이어가시였다.
제철소에 가시면 용해공이 되
시어 철생산방법을 토의하시고

농촌에 가시면 손수 논물논도까
지 가능해보시며 농사짓는 방법
을 의논해주시고 수령님의 한평
생은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평민의 한평생이
였다.
하기에 그이의 한평생을 추억하
시며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
서는 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꽃피
는 조국의 부강번영속에서 수령
님의

아주시고 친필존함으로 비준해
주시였다.
이대로만 하면 잘될것 같다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해하시던
아버이수령님의 그 영상은 오늘
도 겨레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모습으로 생생히 간직
되어있다.
은 겨레가 함께 모여 만복을
누리는 통일된 강성국가건설, 그

것은 수령님의 한생의 뜻과 념
원이였으며 그 실현의 길에 새
겨진 고귀한 업적으로 하여
수령님께서서 영원히 겨레와 함
께 계신다.
하기에 남조선신문 《동아
일보》는 《민족과 인류가 치
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한평생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력, 숭고한
덕망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파란
많은 20세기를 전설적위훈과 불
멸의 업적으로 찬란히 수놓으신
태양의 빛나는 력사였다.》라고
칭송했다.
또한 영국일간지도 《북의
김일성주석이 서거한지 10여년
이 지났지만 그에 대한 숭배는 더욱
강해졌다. 그래서 김일성주석은
아직도 살아있는듯 하다.》라고
격찬해마지 않았다.
겨레의 마음속에 무궁토록
영생하시는 철세의 애국자
김일성주석의 위대한 업적은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에
의해 오늘도 빛나고있다.
그이께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장 연단에 나
서시어 세상에 제일 좋은 우
리 인민, 만년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
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
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
음껏 누리게 하겠다고 힘주어 연
설하실 때, 관문점의 친필비앞에
서 수령님의 친필존함을 바라보
시는 그이의 안광에서 온 겨레는
한결같이 느끼었다.
인민을 하늘로 여기시며 인민
들의 기쁨을 자신의 한생의 락
으로 안고 사신 김일성주석, 조
국통일의 력사적위업실현을 위해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치오신
그이께서는 오늘도 그대로 생존
해계신다는것을.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덕망,
인품까지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높이 모시어 이 땅에는 반드시
통일된 사회주의강성국가가 일터
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주제 55(1966)년 여름이였다.
어느날 회의준비로 시간을 보내시던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문득 어머이 젊은
창문밖을 바라보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일군들을 일별
하시며 나는 밤이 되면 남조선인민들생
각이 더 난다고, 아마도 밤에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 모양이라고, 어쩐지 남조
선인민들생각만 떠오르면 가슴이 아프
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전쟁때 서울에 나가보
았는데 참 감회가 깊었다고, 전쟁
이내만치 나는 그때 서울동포들에
게 인사의 말도 한번 못했다고 추

억을 더듬으시며 나직이 말씀을 이
으시였다.
이때 한 일군이 해방직후 서울사람들
은 역전광장에 모여 김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밤을
지새웠다고 하였다.
그러자 수령님께서서는 갈리신 음성으
로 그런 말을 나도 들었다고, 나는 아
직 조국개신의 인사도 남녘동포들에게
하지 못했다고, 조국통일의 인사를 검
해서 해야겠는데 분렬의 력사만이 깊어
가고있다고 하시면서 분렬의 력사를 끝
장내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고 강조하시였다.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어느해 7월초순이였다.
그루렁 떼년엔 없는 왕가물이 지속
되고있는것이 걱정되시어 수령님께서
는 기상관측부문의 해당일군에게 전화를
거시였다. 지금 날씨가 흐렸는데 어
디서 오는 저기압인가 하는 내용이였다.
그 일군으로부터 남쪽에서 오는 저기
압이 아니라라는것을 아신 수령님께서
는 저기 서울로하시였다.
이번 저기압이 우리 나라 전반지역에
다 미칠것 같은가고 다시금 물으신
그이께서는 저기압세력이 약해 중부조
선까지나 미칠것 같다는 말을 들으시자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곤란하다고

실망해하시였다.
일군은 그이께서 무엇이 곤란하다고
하시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의 심중을 헤아리시듯 수령님께서
는 저기압이 중부조선까지 미친다
데 남녘동포들도 밤을 먹어야 할것이
아닌가고, 거기도 두달이나 가물었다고
심려하시였다.
한강도에 미치는 이상기후현상을 높
고도 남녘겨레를 생각하시며 마음을 놓
지 못하시는 수령님의 숭고한 동포애에
그 일군은 밀물처럼 차오르는 뜨거운것
을 가까스로 삼키였다.
본사기자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주제 91(2002)년 4월 어느
날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양을 방문한 남측특사를
만나신 담화석상에서는 북
남철도와 도로연결문제가
상정되였다.
특사가 내비친것은 신의
주-서울사이의 철도와 개
성-문산사이의 도로연결문

제였다.
그의 건의를 들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부드럽게 웃
으시면서 신의주-서울사이
의 철도만 연결할것이 아니
라 동해선철도도 연결하여
야 한다고, 신의주-서울철
도만 연결하면 조선땅이 찌
그러질수 있다고 하셨다.
생동한 비유가 담긴 그 말

속에 좌중의 사람들은 웃음
을 금치 못했다.
동서의 철도를 다 연결
해야 민족경제를 균형적으
로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
로 기여하게 되고 실리도 크
며 통일을 앞당기는데 유익
하다는 의미가 담겨져있는
것이였다.
본사기자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해마다 7월이면 조국통
일을 위해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
이 더욱 가슴뜨겁게 되새
겨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나라
가 분렬된 첫 시기부터 생
애의 마지막순간까지 민족의
분렬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하
여 한평생을 다 바치시였다.
그이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
지막시기 조국통일관련문
제를 남기신 친필은 불과 아
홉 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
에는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
도 대신할수 없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적인 남
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
표자선석회의를 마련하시고
전민족적인 통일방안을 제
시하시어 내외분렬주의자들
의 《두개 조선》조작책동
을 단호히 저지판시하시
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해
마다 보고와 연설, 담화를
통하여 천명하신 조국통일
을 위한 로선과 방침, 방안
과 제안들은 무려 수백여건
에 달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비
범한 예지와 숭고한 민족
애를 지니시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련방공
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시
어 통일위업실현의 근본원
칙과 방도들을 명확히 밝혀
주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
문제를 민족의 자주적의사
와 요구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갈수 있는
근본원칙과 방도를 천명하
고있다. 전민족대단결10대

남녘겨레들을 잊지 못해하시며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위인의 유모아

조선땅이 찌그러질수 있다

조국통일운동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업적

자정은 가까와 오는데

날씨예보를 아시기도

제 2 의 을 사 오 적 들 을 단 호 히 심 판 하 자

남조선에서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려는 리명박 《정권》의 매국반역행위가 인민들의 커다란 분노와 항의를 불러일으키고있다. 보수당국내부에서 이번 일을 두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개싸움질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계의 중외의 화살은 리명박에게로 쏠리고 있다.

그것은 이번 민족반역행위가 리명박의 체질화된 친일 사대매국근성파 동족살상을 노린 외세주종정책이 낳은 배설물기때문이다. 남조선에서 《정권》을 강탈한 후 리명박이 한 짓이란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위해 애를 팔아먹은 범죄행위밖에 없다.

친일굴종의식이 골수에 꽂혀서 리명박은 집권하자마자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본의 과거죄행을 덮어둔채 남조선인민 《관계회복》과 《양복의교의 복원》을 떠들며 친일사대매국행위에 여념이 없었다. 리명박이 일본을 행각하여 《미제지향적인 관계를 위해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떠벌이는 쓸개빠진것도 서슴지 않은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민족의 님이라고는 꼬물만 콩도 없는 역도는 일본왕을 《천황》으로 개여올리면서 낫 뜨거울 정도로 굵긴거리는 추태도 부리었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역대 집권자들이가운데 일본의 과거죄

악을 덮어버릴 의사를 로골적으로 표시한 친일역적은 오직 리명박뿐이다. 바로 이런 추악한 매국노이기에 일본의 독도강탈행동에 대해 항의할대신 오히려 《지금은 곤난하니 기다려달라.》고 애걸하는가 하면 일본정객들의 력사의곡과 령토 팽창주장에 대해 한마디 반박도 없이 《정치는 개인 의 의사를 말할수 있다.》는 너두리까지 주저없이 내뱉어 각계의 분노를 자아냈다.

오죽하면 일본인론들이 《보기도문 첫 친일파 (정 부)》라고 환성을 올렸겠는가. 리명박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고 일본상전의 발바닥을 훑으며 돌아간것은 반공화국입살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고있는 일본군국주의와 손을 잡아야 부침야망을 손쉽게 실현할수 있기때문이다.

리명박의 체질화된 친일매국적기질과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해치기 위한 전쟁책동에 의해 일본 《자위대》 무력이 처음으로 일장기를 날리며 조선반도에 진출하여 빼앗아 미군과 남조선공군의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는 위협천만만 사대들이 런이 일어나고있다.

이번에 리명박 《정권》이 일본이 패망한 후 처음으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려 한것은 바로 미국과 일본상전에 대한 사대굴종의식과

동족에 대한 팔수에 사무친 적대의식의 산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은 이번 일이 마치도 협정체결추진과정에만 문제가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며 어떻게 하나 임기내에 일본과의 군사적결탁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려 하고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리명박은 3각군사동맹을 추구하는 미국과 제침에 불타는 일본의 야망을 채워주어 그의 환성을 사고 외세의 비호밑에 집권 《안보》를 폐하는것과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침략적공존체제를 확립하려 하고있다.

동족을 해치기 위해서 민족의 백년속적도 꺼리낌없이 끌어들이려는 리명박의당파 매국책동에 그대로 허용한다면 남조선은 미국과 일본의 2중식민지로 전락되고 조선반도에 지난 세기 초처럼 령장들의 각축장전이 되어 민족이 전쟁의 참화 속에 불행과 재난, 죽음을 당할것임이 필연적이다.

리명박이야말로 외세의 총실한 노복이 되기 위해서는 동족에게 그 어떤 재난과 치욕을 들씌우는것도 서슴지 않는 추악한 특등매국노이다.

무릇 죄와 벌은 한줄기에서 자란다. 리명박이 미, 일의 두 깃 끈에 의지하며 명줄을 이어보려 하지만 민족은 을사조약보다 더한 사대매국노들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조선 평화 옹호전 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피뢰패당이 미국의 사측밑에 일본반동들과 군사협정체결을 비밀리에 강행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남조선사회 각계를 비롯한 온 겨레의 지성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6월 26일 역적패당은 《국무회의》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비공개로 통과시킨데 이어 29일 일본 도쿄에서 협정문에 최종서명하러다가 내외의 강력한 규탄과 대중적항거에 부딪혔다.

이 충격적인 사실에 접한 남조선의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비롯한 광범한 각계층은 이번 협정체결을 용서할수 없는 《정권》과 《새누리당》의 친일본색의 결정판, 제2의 《을사조약》 체결행위로, 리명박역도를 제2의 리완용으로 낙인하고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행위를 완전철회하라》, 《21세기의 3.1운동을 벌이자》, 《제2의 항일운동을 전개하자》, 《리명박을 탄핵하자》고 준렬히 단죄, 규탄하면서 거족적인 반 《정부》투쟁에 떨쳐나섰다.

피뢰패당이 강행하려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을 옹호는 조선을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시킨 사대매국

노들의 치욕스러운 《을사조약》 체결행위의 복사판이며 일본군국주의에 제침의 길을 열어주고 이 땅을 또다시 침략자들의 만무장으로 내맡기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인 역적행위이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비롯한 과거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거부하면서 자라개나 령토강탈과 제침야망의 칼을 갈고있다.

이러한 불구대천의 원수와 군사협정을 체결한다는것은 결국 일본이 과거 우리 민족에게 끼친 용서 못할 죄악을 무마시키겠다는것으로서 일제의 총칼에 쓰러진 무고한 동포형제들의 원한과 천백배의 피의 결산을 버리는 온 겨레의 보복의지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더우기 남조선일본군사협정체결문제는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패권지위를 유지해버리는 미국의 제국주의적야망과 적극적인 사측밑에 추진되고있는것으로 하여 더욱 심각하다.

피뢰들과 일본사이에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비롯한 군사협정이 체

결되는 경우 미국이 오래동안 꿈꾸어온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이 완성되는것은 물론 남조선은 미국과 일제의 2중식민지, 침략의 전초기지로 더욱 침략되게 된다.

특히 《대동아공영권》의 옛 망상을 버리지 않고 침략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는 일본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핵전쟁도발책동에 공공연히 가담할수 있는 법적 담보를 제공해주게 된다.

리명박패당이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위해 애를 팔아먹는데 이골이 났던 리대 매국노들이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을 강행하려 하고있는것은 역적패당이 야말로 총미, 종일근성이 골수에까지 짙어 들어찬 추악한 매국노의 무리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준다.

동족을 해칠수만 있다면 백년속적과도 손잡을수 있고 온 강도를 일본군국주의침략자들의 활무대로 내맡겨도 무방하다는것이 바로 리명박패당의 사고방식이다.

리명박역도와 한본색인 《새누리당》 패거리들이 남조선의 격렬한 반일인심에 질겁하여 협정체결이 아니라 체결연기늬움을 벌리고있는것도

여론을 오도해보려는 기만적이며 위선적인것에 불과하다.

오늘 피뢰역적패당이 미국의 아시아제침략에 아무추종하여 아시아판 나토인 3각군사동맹구축과 침략적인 미사일방위체계구축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고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현실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미일상전에게 깡그리 팔아먹으며 북침전쟁도발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사대매국적인 총미, 종일무리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족은 물론 아시아인민들도 핵전쟁의 참화를 결코 면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온 겨레는 반역의 무리인 리명박역도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이 벌리고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늬움을 저지파탄시키고 친화의 매국역적무리를 단호히 심판하며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제101(2012)년 7월 5일 평양

리명박이 앞으로 협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한것을 보아도 물었다는것은 변한 거지말이다.

이처럼 지난 6월 29일 리명박은 논가리고 이용하는 속임수로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을 우롱하려 하였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갈 사람은 거고도 없었다. 《오늘 날자를 보니 6월 29일이다. 6.29에 속아서 6월항쟁의 결과가 없어진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을 《제2의 리완용》으로 규탄하고 협정체결의 연기가 아니라 완전폐기를 위해 제2의 3.1운동을 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족대결, 외세사대를 위해 속임수도, 역적질도 능사로 하는 리명박의 운명을 눈감고 집철수 있게 하는 6월 29일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6월 29일, 그날에 무슨 일이...

라고 하였다. 그때로부터 25년이 되는 지난 6월 29일이 또 《속이 구》가 되었다.

6월 29일 아침, 남조선에서 그 무슨 《제2연명해전 10주년기념식》이라는것이 있더라. 집권이후 처음으로 참가했다는 리명박이 거기서 또 쓰지 못할 말만 잔뜩 늘어놓았다고 한다.

《천안》호사건이나 연평도사건이 《계획된 도발》이라더니, 《북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라느니 뭐니 하는 따위를... 도적이 매를 든다고 특대형 모략과 전연습으로 동족을 자극시켜 온 반북도발자가 누구이고 북남관계는 오늘의 전쟁정도로 끌어간 장본인이 누구인데 그따위 소리인가.

올해에도 북을 겨냥한 각종 전연습을 벌린것으로도 모자라 천문학적역수의 돈을 미국상전에 세기며 침략무기를 끌어들이는데 앞장선것이 바로 리명박이다. 까마귀 평 잡아먹을 궁리한다고 리명박은 《천안》호사건이나 연평도사건과 같은 제2, 제3의 도발모략, 무장충돌들을 계속 연출하여 정세를 긴장시켜놓고 그를 기회삼아 집권연장을 해보려는것 같다.

그에서 다 산 정치승장의 처지에도 여기저기 싸다니며 악에 받친 말만 골라했지도 모른다. 웃기는것은 군대물도 못먹은 주재에 자기를 《군통수권자》로 내세우며 《단호한 대응》을 떠들다가 돌변하여 《국주적목적은 평화와 상생공영》이라고 가소로운 너스레를 떨것이다. 전쟁대결과 《북북세력척결》이라는 대결의 칼을 양손에 들고 사사건건 동족을 끌고들면서 《평화》와 《상생공영》 타령이라니 동전의 양면같은 리명박식의 발언이다.

그것도 불과 몇시간만에 거짓이라는것이 말짱 드러났다.

그날 오후, 남조선의 국방부와 외교통상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했더라.

동족과 한사코 해보기 위해 백년속적인 일본과도 서

슴없이 손을 잡고 군사협정까지 체결하려는 매국배족의 역적질도 주저하지 않았다.

《평화》와 《상생공영》 타령은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우리 민족을 얼려넘기기 위한 하나의 속임수였다. 또 하나, 아첨에 《군통수권자》라고 으시대던 리명박이 그 협정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한사코 우기는 것이다.

물론 국방부나 외교통상부가 군사문의한이고 외교망신의 명수인 리명박을 따돌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억측일뿐이고 이른바 《군통수권자》라는 리명박이 군사협정을 전혀 몰랐다는것은 말그대로 어불성설이고 《빠속까지 친미, 친일》인 그가 미국의 지휘하에 체결되는 일본과의 협정을 몰랐다는것은 그야말로 아귀가 맞지 않는다.

한바리에 질어도 짝지지 않는다

얼마전 남조선의 리명박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체결을 추진하다가 급기야 연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소동을 피웠다.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급속히 통과시킨 협정문이 서명을 앞두고 연기된것은 박근혜의 《보류》의견에 따른 《새누리당》의 요청때문이라는것이다. 그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박근혜는 《보류》리유를 《절차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때문》이라고 하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해외에서 돌아온 리명박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것》이라고 하였다. 리명박과 박근혜의 말을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다. 하나는 절차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과연 일본과의 군사적협정체결을 《보류》한것이 단순히 절차문제때문인가. 또 이 협정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가 묻지 않을수 없다.

일본과의 협정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것이 1905년의 《을사조약》이며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이다. 망국은 순간이고 북국은 천년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민족은 이 두 《조약》에 의해 장장 40년동안 일제의 식민지노예노릇을 강요당하였다.

우리 민족이 이제 일본에게서 받아내야 할것은 과거 피비린 죄악의 사죄와 배상에 대한 문서이다. 저에게는 오늘날까지 우리 겨레의 통일을 방해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나 독도문제

에 대해 파렴치한 궤변을 늘어놓고있는데 대한 사죄문도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신》독재 《정권》은 《을사조약》 남조 60년이 되는 1965년에 체결한 《한일협정》을 통해 과거 일제의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똑똑히 받아내지 않았고 일본에 경제적, 문화적 침략의 길만 열어주었다.

지금 그 후연인 리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일본에 군사적침략의 길까지 닦아주려 하고있다.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체결되면 핵무장화의 야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제침의 길로 내달리고있는 일본에 군사정보까지 쥐여주게 되고 조선반도가 19세기 말, 20세기 초처럼 대국들의 각축장전이 되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그것이 이루 민족에게 기철해독적후과는 이루 해이릴

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의 각계가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려는 리명박을 리완용에 빚대어 《특등매국노》로 지탄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결국 리명박과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그 무슨 《절차》를 운운하며 협정체결의 필요성을 떠들고있는것은 그들의 친일매국근성을 여실히 보여주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마음속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대선》에 불리할가 우려해 추진을 보류한것》이라고 하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이 협정에 대한 립장을 명백히 밝힐것을 요구 하고있다.

《빠속까지 친미, 친일》인 리명박 《정부》나 그와 《차별화》를 내세웠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역시 속 검기는 마찬가지로이다. **신성일**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용납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초불투쟁

남조선의 각계층단체 성원들이 6월 28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리명박역적패당의 친일사대매국행위를 규탄하는 초불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을 추진하는것은 반러사적행위로서 반드시 타도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말하였다. 민족사에 씻을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리명박은 제2의 리완용이나 다름없다고 그들은 단죄하였다.

그들은 지금 일본이 군국주의부활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고 하면서 독도강탈에 돌아치고 과거죄악에 대한 반성을 외면하는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언명하였다. **본사기자**

리명박역적패당이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고 책동한것이 폭로되어 남조선 각계의 지성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동족을 해칠수만 있다면 백년속적과도 손을 잡는 반민족적행위로 하여 온 남조선 양심들이 부글부글 끓자 당황망조한 리명박패당은 협정체결을 연장하는것으로서 민심을 속이려고 피하였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정계는 물론 사회 각계는 일제히 들고일어나 일본과의 군사협정체결은 민족의 운명을 통락하는 물론역행위, 매국행위라고 하면서 성명발표, 규탄대회, 초불집회, 결의대회, 《대통령탄핵》운동 등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있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들은 《이번 협정은 리명박과 박근혜의 사전협의로 이루어진 친일본색의 결정판이다.》, 《《(한국)의 안보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은 퇴임후 교향오사카로 망명할 준비를 하고있고 박근혜는 《대통령》이 될 꿈만 꾸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한편 2일 오전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와 재협상국민행동, 민족문제연구소 등

《리명박, 박근혜의 친일본색의 결정판》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은 위안부 등 식민지배에 대해 공식 사죄와 반성을 한적이 없다.》면서 《이런 일본정당중 리명박패당은 공식 사죄를 내지 않고서 친일적인 군대로 인정해 《한》 반도에 개입할수 있는 단서를 만들어줄 군사협정을 체결하는것이 온전한 정신을 가진 《정부》가 취할 외교안보정책이라고 볼수 없느냐.》, 《리명박은 《국민》에게 뱉뱌하면서 미국과 일본에는 고분고분하고 사족을 못쓴다.》면서 《자리보존을 위해 리완용의 길을 걸어도 되나,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자리만 지키기 위해 나라를 판 매국노와 뭐가 다르냐.》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리명박은 군사협정명실 추진하기로 인한 외교적망신에 대해 사과하고 《국회》론의약속을 어기고 《국무회의》에서 불체 체결한 김황식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부장관,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은 파면하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당국은 앞으로의 책임이 두려워 협정체결과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극비에 불이응을》 아니라 《《(한) 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안을 통과시킨 《국무회의》에서 관례적인 속기특조차 작성하지 않았다.》며 보수세력들의 책임 회피늬움을 단죄하였다. **그런이 아니다.**

이번 사태가 미국의 조종하에 벌어진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의 감정을

더욱 폭발시키고있다. 이미 폭로된바와 같이 지금 미국은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협정체결을 위해서 계속 부추겨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면서 저들의 대아시아지배전략에 깊숙이 끌려들고 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는 미국이 지난 6월 15일에 맺은 제2차 남조선미국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리명박 《정권》을 강박하여 협정체결에 나서게 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이번 군사협정으로 《한》, 미, 일 3각군사동맹구축의 첫 단추가 채워졌다.》, 《3각군사동맹을 구축하려던 미국의 속원이 반세기만에 풀리게 된 반면에 《한국》은 미국의 대아시아 지배전략에 깊숙이 끌려들게 되었다.》, 남조선은 《미국에 많은 인적, 물적자원을 넘겨바치는 병참기지, 아시아의 전초기지》로 전락되게 되었다고 미국과 친미사대매국노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시하였다. 남조선을 령장들의 각축장으로 만들려는 리명박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커녕 우리 민족의 생존 그자체를 논할수 없게 된다.

지금 남조선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사태가 빚어진것은 리명박을 잘못 뽑은 국민들의 탓이다.》, 《국민들은 잠에서 깨어나 친미, 친일 《정권》의 재등장을 막아야 한다.》고 하면서 오는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집권세력을 심판할 의지를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리광성**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체결 추진을 반대하며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꽃물결과 뜨거운 포옹속에 남녘으로 돌아가는 로수희부의장

로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을 환송하는 집회가 5일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이바지할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돌아가는 부의장을 전송하기 위해 각계층 근로자들이 집회장에 모였다.

집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조국통일유산을 철저히 관철하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새 아침을 앞당겨오자!》라는 구호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을 환송하는 집회 진행

관들이 세워져있었다.

부의장이 집회장에 도착하자 군중들이 열광적인 박수로 뜨겁게 맞이하였다.

집회에는 최진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의장, 범민련,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성원들, 비전향장기수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최진수의장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100일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부의장이 지난 3월 24일 사신을 해치고 평양에 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온 겨레는 자주통일의 길로 곳곳이 나가고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의 정의의 투쟁에 언제나 굳은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제류기간 부의장이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돌경

추행사들을 비롯한 성대한 행사들에 참가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된 모습을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앞으로도 우리는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이며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길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와 손잡고 나아갈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로수희부의장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경건히 추모하는것은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레이고 도리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북녘인민들은 자기를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맞아주고 환대해주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평양방문의 나날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신 백두산위인들을 어버이수령이라고 부르는 참뜻을 깨달았다고 강조하였다.

범민련 남측본부와 남녘민중들은 반통일세력을 심판하고 6.15통일시대의 거센 찬호를 삼천리강토에 다시금 굽이치게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파쇼와 반통일의 광란이 기승을 부릴수록 범민련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치는 데 기여하며 민족이 기억하는 통일인사로 생을 빛내어갈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다.

녀성근로자가 부의장에게 꽃다발을 주었다.

《조선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속에 통일기를 든 로수희부의장은 평양시민들의 뜨거운 환송을 받으며 관문점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본사기자



로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이 5일 오후 관문점 분리선을 넘어갔다.

최진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의장, 범민련,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성원들이 부의장을 전송하기 위하여 관문점까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서거 100일 추모행사에 참가하며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이바지하려는 일념안고 공화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부의장을 환송하기 위하여 개성시의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관문점 분리선을 넘어갔다

년학생들이 관문점에 나와 있었다.

그들의 열광마타에는 북녘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할 의지를 표명하던 남녘인사에 대한 뜨거운 동포애의 정이 어려있었다.

부의장이 관문각알마당에 도착하자 군중은 통일기와 꽃다발을 흔들면서 뜨겁게 맞이하였다.

부의장에게 녀성근로자가 꽃다발을 안겨주었다.

노래 《조선은 하나다》, 《우리는 하나》의 선율과 《조국통일》, 《우리 민족끼리》, 《다시 만남시다》의 합성이 울려 퍼지는 속에 부의장은 범민련, 범청학련 북측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성원들과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관문점 분리선너머에는 무장한 남조선군헌병들이 쓸어나와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부의장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 만세!》를 목청껏 외쳤다.

오후 3시, 통일기를 든 부의장이 비장한 각오를 안고 분리선을 넘어섰다.

사복차림의 피한들이 달려들어 그를 강제로 끌고 황황히 사라졌다.

환송군중은 《리명박역적 패당을 라도하라!》,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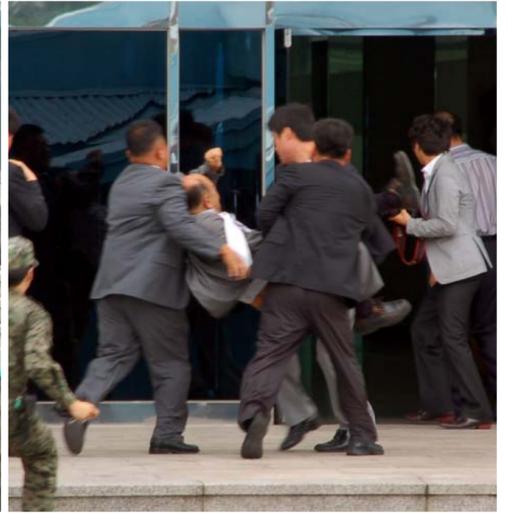
인사 로수희선생을 당장 풀어놓으라!》, 《제 집으로 돌아가는 로수희선생의 길을 열어놓으라!》,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은 로수희부의장의 앞길을 가로막는 반인륜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로수희선생님, 조국통일의 그날까지 잘 싸워주십시오》라고 웨치면서 부의장에게 격려의 뜻을 보내었다.

민족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지울수 없는 자욱을 남긴 로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을 북녘인민들은 언제나 잊지 않을 것이다.

본사기자



판문점 중 앙 분리 선 남 쪽 에 서 는 어 떤 일 이 ...



지난 5일 오후 3시, 평양 방문을 마치고 돌아가는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로수희에 대한 남조선보수경계집단의 파쇼폭거가 감행되었다.

이날 사복을 입고 대기하고 있던 피한들은 로수의 부의장인 판문점 중앙분리선을 넘어서기 바쁘게 줄지어 이리떼마냥 달려들었다. 그들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만세!》를 목청껏 외치고 판문점 중앙분리선을 넘은 로수희부부의 목을 움켜쥐고 팔을 비틀며 그를 짐작처럼 흔들고 그후에는 포승줄로 몸을 꽂꽂 결박하고 자동차에 싣고갔다.

그날 판문점에는 민족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고 돌아가는 남녘의 통일인사를 환송하려고 손에 손에 꽃뭉치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있었다. 북녘의 각지에서 남녀로소가 TV에 마주앉아 로수희부부의 돌아가는

천벌을 받아야 할 인간 백정들의 만행

판문점 중 앙 분리 선이 무엇 이기에 저런 만행을 눈앞에서 보면서 그냥 놔두느냐고 인간간의 리성으로서 몹시 이 쟁거리 상심되고 민족애, 통일 의식이 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저런 놈들하고는 총대 로밖에 결산할 것이 없다며 가슴을 두드렸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로수희부부의장은 이번엔 민족의 한 성원으로 동족의 최대국상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북을 방문하였다. 그의 공화국방문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의로운 장거리로 찬양을 받으면 받았지 어떠한 죄로도 될 수 없다. 리명박패당이 가로막은 북남관계를 어떻게 하나 열어

보겠다고 자기 한몸을 내대고 북행길을 단행한 의로운 통일인사를 꽃뭉치로 맞이하는 커닝 증죄인으로 몰아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서자마자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결박하였으니 동족대결에 미처 도 더럽게 미친자들의 몹서 리치는 만행이 아닐 수 없다. 로수희부부의장은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70이 되여오는 로인이다. 그런 나 많은 로인을 상대로 온 겨레가 지켜보는 면전에서 짐승도 낫을 풀릴 폭행을 일삼았으니 어찌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사람이 아니라 인간 백정들이고 회색의 경매 무리들이다. 저런 놈들이 권력을 쥐고 민심을 통략하며 북남관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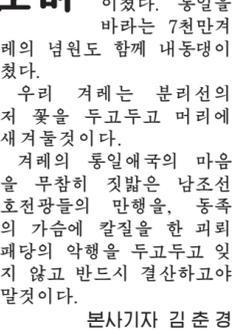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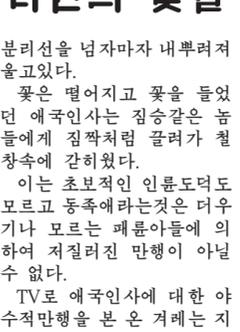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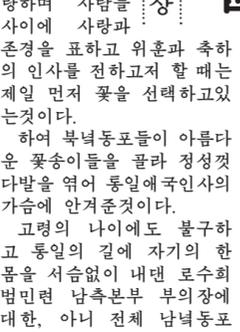
를 6.15이전의 불신과 대결의 관계로 돌려놓았고 이 땅을 총포란이 오가는 살벌한 지역으로 만들었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 온 겨레의 참성과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서었다. 특히 우리의 최고존엄을 엄중히 모독하는 특대형도발을 감행한데 대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리명박패당은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극악무도한 민족의 원수임이 다시금 확증되었다. 민족에게 화만 끼치고 갈수록 전쟁위협만 더 몰아오는 리명박적대패당과는 마주앉아 대화할 필요도 없고 오직 무자비한 징벌만을 안겨야 한다. 공화국의 생명인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자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 반드시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꽃이 울고있다. 꽃이 분노하고있다. 판문점의 분리선을 넘어 남측지역에 떨어진 꽃. 그 꽃이 과연 어떤 꽃인가. 예로부터 꽃은 아름다운 색과 자태, 그윽한 향기로 하여 사랑과 행복, 평화와 번영, 경의의 상징으로 되어왔다. 그래서 누구나 꽃을 사랑하며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존경을 표하고 위훈과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자 할 때는 제일 먼저 꽃을 선택하고있는 것이다. 하여 북녘동포들이 아름다운 꽃송이를 골라 정성껏 다발을 엮어 통일애국인사의 가슴에 안겨준 것이다. 고향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통일 의지에 자기의 한몸을 서슴없이 내던 로수희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한, 아니 전체 남녘동포

들에게 보내는 북녘인민들의 사랑과 정이 담겨진 꽃이다. 하나된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겨레의 뜨거운 통일념원이 담겨진 꽃이다. 그런데 북녘땅에서 활짝 웃던 그 꽃이 판문점 중앙

금 치솟는 격분으로 가슴을 불태우고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직 동족대결의 광증만이 차넘치는 남조선적대패당에 대한 분노로 이를 갈고있다. 그놈들은 통일에국인사가 안고간 꽃만을 내동댕이치지 않았다. 북녘동포들의 진정성을 내동댕이쳤다. 통일을 바라는 7천만겨레의 녀들도 함께 내동댕이쳤다. 우리 겨레는 분리선의 저 꽃을 두고두고 머리에 새겨둘 것이다. 세계의 통일애국의 마음을 무참히 짓밟은 남조선 호전광들의 만행을, 동족의 가슴에 칼질을 한 괴뢰패당의 악행을 두고두고 잊지 않고 반드시 결산하고야 맞겠다. 본사기자 김춘경

분리선의 꽃을 보며



누가 죄인인가

이틀전 남조선반통일보수패당은 판문점을 통해 돌아가는 로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이리떼같이 달려들었다. 판문점 중앙분리선을 넘어서는 순간까지도 그는 북녘겨레의 따뜻한 배움과 눈물겨운 전송을 받았다. 그런데 리명박적대패당은 북녘동포들과 세계가 지켜보는 면전에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고 돌아가는 통일애국인사를 몰아붙여 달려들어 체포해가는 야수적만행을 감행해나섰다. 이것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짐승같은 짓이 아닐 수 없다. 로수희부부의장은 역적패당의 광란적인 동족대결책동으로 북남관계를 완전국화에 처한 오늘 우리 민족끼리의 새시대, 6.15통일시대의 거센 찬 바람이 삼천리강토에 다시금 끓어오르게 할 굳은 의지를 안고 그를 위해 한몸 바쳐 나선 통일애국인사이다. 그가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으로서 지금까지 한 일이란 모두 민족이 하나된 통일, 애국을 위한 것이었다. 이번에도 그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한 순수한 일념으로 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로수희부부의장의 평양방문은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보나 민족화해와 단합의 견지에서 보나 결코 죄로 될 수 없으며 온 겨레의 찬양을 받아야 할 의로운 장거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에 그는 북녘의 가

는 곳마다에서 동포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남녘의 겨레들도 그의 평양방문을 민족과 통일을 위한 의로운 행동으로 평가하고 보수패당의 방해책동에서도 그의 귀환에 맞추어 립진각일대에서 환영행사를 개최하였다. 오히려 죄를 따지고 민족의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동족의 대국상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남조선인민들의 조의방문길을 가로막은 리명박패당이다. 그들이 로수희부부의장을 탄압해나선것도 도저히 용서 못할 죄악이 아닐 수 없다. 한지맥을 이은 겨레의 땅에서 살면서도 사상과 정견,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북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제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리명박패당과 같은 추악한 대결광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나쁜 짓이다. 미국은 다녀도 일었고 동족이 사는 공화국을 다니면

안되며 미국상전에게는 발라 맞추어도 일었고 동족은 찬양해서는 안된다든 쓸개배된의 무리들이 바로 리명박패당이다. 7월 5일, 북과 남의 온 겨레가, 아니 세계가 똑똑히 보았다. 이 땅에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은 반통일대결광신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역적패당이 통일애국인사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몸은 철사로 묶었지만 그의 가슴속 깊이 간직된 통일애국의 신념과 남녘겨레의 드높은 통일 의지는 결코 묶을 수도 짓눌러주 수도 없다. 시대착오적인 《보안법》의 칼날을 휘둘러 통일애국인사를 야수적으로 체포해나선 리명박적대패당은 민족의 원수, 통일의 원수이며 역사적 죄인으로서 두고두고 겨레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본사기자 최 광혁

TV를 통해 통일애국인사인 로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한 리명박적대패당의 탄압만행을 보면서 뿔이오르는 분노도 온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온 민족이 그의 평양방문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속에 환송나온 동포들이 보는 앞에서, 세계의 면전에서 그를 짐승처럼 마구 다루며 죄인취급하듯 끌고갔으니 어찌 이가 갈리지 않겠는가. 인륜도덕을 저버리고 또다시 무엄하게 날뛰는 리명박적대패당이 어떻게 징벌해야 적성이 풀리지 모르겠다. 로수희선생이 단호히 평양행로를 택하게 된 것은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민족의 아픈 가슴에 칼질을 하고 동족의 불상사를 리용하여 어리석은 망상을 이루어보려는 리명박적대패당의 반인륜적악행에 더는 참을수가 없어서였다. 그것은 남녘겨레를 대표하여 민족과 통일을 위해 한생을 바친 절세의 위인격을 표시하고 한몸 다 바쳐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할 비상한 각오를 가진 통일인사의 과감하고 의로운 행동으로서 인륜도덕적으로 보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견지에서 보나 온 민족의 찬양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파쇼무리한들이 북의 2천

수백만명의 동포들이 지켜보는 속에서 조의를 표시하고 돌아가는 통일애국인사를 중죄인으로 치부하며 판문점에서부터 승냥이의 기질 그대로 야수같이 짐작처럼 들어 끌어간 것은 동족의 아픈 가슴에 또다시 칼을 박는 것과 같은 도저히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천벌을 받아 저승로 가야 할 자들은 로수희가 아니라 인륜도덕도, 민족의 미풍양속도 모르며 천인공노할 망동을 맘껏 짓고 있는 리명박패당이다. 인간의 초보적인 갖춤새도 갖추지 못하고 동족대결책동에 모르는 무지한 역적패당이 남조선에서 권력을 타고앉았기에 북남관계를 파국에서 좁혀내려 버트어 버트어 남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가세되지 않고있다. 결론은 명백하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자면 리명박적대패당을 파멸시킬 때려잡아야 한다. 나라와 민족앞에 천추만대를 두고도 잊지 못할 만고대죄를 저지르고도 이번엔 동족의 가슴에 또다시 칼을 박은 리명박무리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남조선의 원수라는 것이 우리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평양시 중구역 련화1동 김국철

《MB정권》이 짓밟은 통일기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포함하여 하나의 조선반도가 새겨진 기발을 보드라면 6.15시대의 수많은 추억들이 떠오른다. 지난 수년전 우리 겨레가 《조선은 하나다》를 목청껏 외치며 힘차게 내훈을 얻던 기발, 수많은 통일행사장터마다에서 민족의 통일열기를 한껏 북돋아주었던 기발이 아니던가. 통일기의 퍼덕임속에서 감격의 6.15시대가 흘러왔고 통일기를 바라보며 통일조국의 레일에 대한 믿음을 새겨안던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그 신성한 통일기가 지금 저 분계선남쪽에서는 저렇게 길가의 조악들처럼 처참히 짓밟히고있다. 북녘동포들의 통일열망이 넘치는 눈빛을 바라보기 민망스러운듯 보기도 억울스러운 시커먼 안경을 쓰고 어깨에는 외세가 예뻐준 총을 메고 더러운 군화발로 통일기를 짓밟는 남조선괴뢰군. 통일 의식, 민족감정이 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맹렬한, 대결광신자들은 세계가 보는 앞에서 저렇게 민족의 통일열망을 마구 짓밟고 있고 통일없이 못 사는 겨레를 심히 우롱하고 있다. 그 한장의 사진이 모든것을 다 말해주고

자은정



로수희부의장에 대한 탄압만행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우수한 도자공예술을 보여주는 전시회

우리 민족의 도자유산 - 청화백자유물 전시회 진행

얼마전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서는 역사에 호가들과 전문가들의 관심속에 《우리 민족의 도자유산-청화백자유물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 도자기는 그 색과 모양, 형태가 아름답고 우아한것으로 하여 세계에 널리 이름을 떨쳐왔다. 슬기롭고 재능있는 우리 선조들은 훌륭한 도자기를 생산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남겼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청화백자유물 50여점이 전시되었다. 우리와 만난 유경회 조선중앙력사박물관 강사는 청화백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청화백자는 리조전기간에 걸쳐 널리 보급된 자기로서 백자질면에 푸른색안료(산화코발트)로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장식을 주원료로 하는 유약을 발라 구운 자기를 말한다. 청화백자는 동아시아에서 중세백자의 마감을 장식한 자기의 하나로써 나라마다 청화백자가 있지만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낸 청화백자는 뛰어난 회화술과 조형미로 하여 세상에 자랑떨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청화백자의 출현시기는 14세기말 즉 고려말이라고 한다. 전시회장에는 청화백자출현시기를 력

사적사실로 보여주는 《리조실록》자료들이 여러건 전시되어있다. 청화백자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 발전하였는데 전시회에는 참관자들이 리해하기 쉽게 단계별로 유물이 전시되어있다.

우리는 먼저 첫단계인 15세기~17세기전반기까지의 청화백자유물들을 돌아보았다.

《이 시기의 청화백자들은 무늬나 형태에서 고려시기의 우수한 도자공예기법들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그 출현 초기부터 회화적형상수준이 매우 높은것이 특징적이다. 이 《청화백자새대화무늬항아리》만 보아도 전반기인 형태에서 고려시기의 어깨 넓은 항아리의 모습을 많이 닮고있지 않습니까? 또

《청화백자포도냉쿨무늬접시》에 그려진 포도는 다남다북을 상징하는것으로서 아들을 많이 낳고 복을 많이 받으라는 선조들의 소박한

《청화백자장우대명잔대》유물역시 몇포기의 국화꽃을 원근감을 조절하면서 현실 그대로 형상하였을 뿐 아니라 옷쪽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백을 주면서 여유있게 그려넣은것은 종전의 도식화된 무늬구도에서 대담하게 벗어난것으로서 당시 무늬들이 자기를 빛는 도공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문 화가들에 의하여 그려졌다는

것을 말해주고있다고 강사는 말했다. 청화백자를 가리켜 일명 《화자기》(그림자기)라고 부른다고 한다.

《물물법과 구름법으로 새와 꽃나무무늬를 생동하게 그려넣은 《청화백자새꽃나무무늬항아리》와 예로부터 장수의 상징으로 우리 선조들이 사랑하여온 학이 그려진 《청화백자학무늬항아리》를 비롯한 여러 유물들은 이 시기의 청화백자가 흰바탕우에 그려진 청화무늬의 간결함과 순박성으로 하여 청화의 극치를 이루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둘째단계인 17세기말~18세기의 청화백자유물들도 돌아보았다.

《청화백자포도냉쿨무늬접시》에 그려진 포도는 다남다북을 상징하는것으로서 아들을 많이 낳고 복을 많이 받으라는 선조들의 소박한



① 청화백자포도냉쿨무늬접시
② 청화백자모란꽃무늬병
③ 청화백자룡구름무늬항아리

념원을 반영하고있었다. 우리는 《청화백자룡구름무늬항아리》유물앞에서 발걸음을 뒤흔 수 없었다. 용이 여의주를 낚으려고 구름속을 헤가르며 꿈틀거리는 생동한 모습, 시원히 쭉 뻗아올린 목과 꺾여진 어깨에서 유연한 곡선을 지으면서 흘러 내린 물결, 이 모든것이 잘 조화되어 얼마나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주고있는 청화자기인가.

《예로부터 용은 여의주를 물어야 천지조화를 부릴수 있고 바라는 소원이 성취된다고 하였답니다. 이러한 관념에서 우리 인민들은 공예품에 용을 형상하기를 즐겨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용을 형상한 작



① 청화백자포도냉쿨무늬접시
② 청화백자모란꽃무늬병
③ 청화백자룡구름무늬항아리

품들가운데서 드물게 큰 형태와 우수하게 창작된 용의 형상 그리고 부드러운 유약층 등에서 세련되고 아름다운 리조 청화백자의 특유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전시된 한점한점의 유물들은 민족적색채가 짙은 청화백자의 독자적인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도자공예사를 빛나게 장식한 선조들의 재능과 슬기에 대하여 감탄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슬기와 슬기에 대하여 감탄을 금할수 없게 하였다.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는데 크게 이바지한 전시회였다.

본사기자 김준경

세계에 이름난 조선비단

우리 나라의 비단은 가별고 질질뿐 아니라 아름다운 무늬와 부드러운 손맛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먼 옛날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견직물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원시시대 말기와 고대시기에 배, 모시와 함께 질 좋은 비단들을 많이 생산하였다. 황해북도 봉산군 지리암유적을 비롯한 우리 나라 신석기 및 청동기시대 유적들에서 누에를 형성한 질그릇들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은 이미 고대 이전 원시말기부터 비단이 생산되고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세나라시기에는 우리 나라의 비단재는 기술이 일본에

까지 전파되었다. 일본의 력사서 기록한 《일본서기》에는 4~5세기부터 7세기에 이르는 기간에 우리 나라의 비단재는 기술자들이 일본에 건너가 그 기술을 가르쳐줌으로써 일본에서 비단이 생산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시기에는 비단생산기술이 더 발전하고 그 종류도 훨씬 늘어났을뿐 아니라 질 또한 우수하여 이웃나라는 물론 멀리 서남아시아지역에까지 수출되어 세계에 《고려비단》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리조시기에는 전국각지에 뽕나무를 많이 심고 물이 좋은 곳마다 이름난 비단생산

기지들을 꾸러였다. 그중에서도 평안북도의 념변, 평안남도의 성천, 함경남도의 금야, 정평, 고원, 리원, 흥원, 북청, 단천, 함경북도의 길주, 명천, 강원도의 철원, 황해북도의 수안, 전라남도의 라주, 경상북도의 안동 등이 유명하였다.

우리 나라 비단천가운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이름지어주신 《악산단》과 《구름단》이 있다. 오늘날 조선비단은 그 섬세하고 아름다운 우아한 빛깔과 부드러운 촉감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속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본사기자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귀중한 고전유산중에는 《정비록》도 있다. 《정비록》은 임진조국전쟁때 리조봉건정부의 관리로서 정치, 경제, 군사, 외교문제들의 처리를 담당하였던 류성룡이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체험한 사실들을 중심으로

역사상식

고전유산 《정비록》

후 1643년에 그의 후손들에 의하여 출판되었다. 16편 8책으로 된 《정비록》에는 우선 책의 첫머리에 저자의 간단한 머리글이 있고 1592~1598년의 전쟁과정의 총괄적으로 서술되어있다. 그리고 저자가 전쟁기간 왕에게 제출한 군사, 경제, 사회정책에 관한 의견을 쓴 문건들과 군사입무를 맡고

현지에서 활동하면서 입수행과 관련한 집행정형, 적정에 대한 정보 등을 왕에게 보고하거나 보고받은 문건들이 날차순서로 실려있다. 또한 한 저자가 령의정으로서 행정 및 군사의 최고관직을 겸하고있으면서 관하의 여러 도

역사상식

고전유산 《정비록》

의 순찰사, 방어사 또는 병사, 수사들에게 보낸 각종 문건의 부분들이 실려있다. 책은 끝으로 저자가 이 책을 다 쓴 뒤에 교훈으로 된다고 생각한 문제들과 일화들, 외교관계에서의 리면들이 서술되어있다. 《정비록》은 이와 같이 방대한 자료를 년, 월, 일

순으로 실고있는것으로 하여 임진조국전쟁전 및 전쟁시기의 귀중한 자료들을 많이 제공해주고있다.

또한 사물에 관한 관찰과 분석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통치층내부의 부패한 진상도 어느 정도 비판적립장에 서 폭로한것으로 하여

역사상식

고전유산 《정비록》

임진조국전쟁시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과 봉건사회의 내부형편, 외교관계, 전쟁형편을 이해하는데도 적지 않게 도움을 주고있다. 《정비록》은 임진조국전쟁시기 우리 인민의 반침략투쟁을 비롯한 귀중한 자료들을 실고있는 거대한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이다.

본사기자

이따금 해와 달에 무리가 자주 끼는것을 볼수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해무리와 달무리를 《비의 예언자》라고 하였다.

해와 달을 중심으로 쟁반 같은 둥근 해무리와 달무리가 생겨날때 무리를 일으키는

해무리와 달무리

금만 자체히 쳐다보면 무지개와 비슷한 색깔을 가늠해볼수 있다. 이처럼 무리는 여러가지 색깔이 한데 겹쳐서 이루어진 가락지모양의 둥근데가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서 해나 달을 둘러싸고있는 광학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달무리는 해무리에 비하여 색깔이 연하며 거의 희미하게 보인다. 그것은 달빛이 해빛보다 몹시 약

하기때문이다. 무리는 어느때나 나타나지 않는다. 무리가 끼었을 때 하늘을 보면 언제나 비단보자기를 띄운것과 같은 높고도 아주 얇은 구름막이 덮여있곤 한다.

이 구름을 기상학자들은

해무리와 달무리

비단구름(권층운), 비단구름(권운)이라고 부른다. 구름의 종류는 크게 10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그중에서 2가지 종류의 구름에서만 무리가 생긴다. 일출일몰이 되고있는 이 구름들은 이동하는 저기압의 앞면에 늘 나타난다. 이 구름이 나타난 얼마후에는 많은 비가 내린다. 그래서 사람들

은 해무리와 달무리를 《저기압의 길안내자》, 《비의 예언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지 해무리와 달무리가 생겨도 비가 적게 내리거나 센 바람만 불 때만 있다. 무리가 생기는 구름은 더운전선앞면의 600~800km

지점에서 나타나거나

해무리와 달무리

저기압이 북동쪽으로 이동해오고 무리현상이 나타났지만 비가 내리지 않은 경우는 창장저기압이 동쪽으로만 이동해오는 경우이다. 또한 찬전선뒤면에서 무리가 생길 때에도 비는 내리지 않는다. 중앙기상예보연구소 연구사 리영옥

조선속담

우둔성

— 갈잡줄은 모르고 흙질줄만 안다.

— 한나는 알고 돌은 모르는 우둔한것을 이르는 말.

— 도끼를 들고 나물 캐러 간다.

— 계곡에 어울리지 않는 우둔한 행동을 하는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바늘로 뚫음을 막는다.

— 적은 힘으로 큰것을 막으려 하는 행위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 분다분다 하니까 하루아침에 왕겨 석성을 분다.

—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남들이 옆에서 잘한다고 추어주니까 우쭐해서 정신없이 해

비용 서곡이 되고 하면

가곡, 교성곡 등 큰 규모의 곡 음악들이 공연막을 열기 전에 연주하는 음악으로서 청중들속에 분위기를 조성하는 음악이다.

청중들은 그 서곡을 들으면서 이제 울리게 될 곡음악에 대한 감성적인 표상을 가지며 자각상태에 들어가 음악을 듣게 된다. 이러한 서곡들이 매우 인기를 끌게 되자 작곡가들속에서는 곡음악과는 별개로 한 음악

우둔성

대는 미련한 사람이나 그런 행동을 두고 이르는 말.

— 짐으라는 쥐는 안잡고 씨암닭만 분다.

— 고양이 가 쥐는 안잡고 씨암닭을 덤쳤다는 뜻으로 하라는 일은 안하고 사고만 저지르면서 큰 손해만 입히는 경우를 비유하여 이르는 말.

—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다.

— 적은 힘으로 뿔것을 쓸데없이 큰 힘을 들임을 이르는 말.

— 후추를 통채로 삼킨다.

— 너무 미련하게 행동함을 욕으로 이르는 말.

본사기자

회용 서곡들도 작곡하게 되었다.

오늘날 서곡에는 극음악에 대한 서곡과 음악회용 서곡들이 속하고있다. 흥미있는

서곡

것은 어떤 가곡의 서곡은 자주 연주되고있는 반면에 실지 그 서곡의 몸체라고 할수 있는 가곡은 상연되지 않거나 아예 잊혀지고있는것이다.

만능치료로 쓰이는 가두배추

B.C. 600년경 유크의 켈트족이 재배하기 시작한 가두배추는 17~18세기 네델란드사람에 의해 아시아에 전파되었으며 우리 나라에 20세기경에 들어왔다.

고대로마에서는 가두배추를 모든 병을 치료할수 있는 만능약이라고 하면서 민간로법에 적극 활용하였다. 고대로마사람들이 매일 가두배추를 먹었기때문에 로마군대에는 환자가 없었다는 이야기로 전해져내려온다.

로제야의 고대의학도서에는 가두배추의 즙을 짜서 술과 함께 마시면 간에 좋으며

서곡이 가지는 중요한 지표의 하나는 모두가 표제를 가지고있으며 일정한 문학적내용을 담고있는것이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서곡은 유크기악음악의반이 가지는 무묘제성에 의한 추상적인 음악감상에서 탈피하기 위하여 나온 음악종류라고 할수 있다. 서곡은 보통 단일악장으로 구성되며 가 있다

가두배추의 뿌리를 태워먹으면 결석치료(장기안에 있는 무기 및 유기물질이 돌같이 굳어진 덩어리를 해소하는 치료)에 효력이 있다고 기록되어있다.

가두배추에 가장 많이 함유된 특색있는 성분은 케양에방과 치료에 특효가 있는 비타민 U이다.

제니라는 프랑수아학자는 1950년 가두배추에서 케양의 발생을 방지하는 물질인 추출하고 이름을 《비타민 U》라고 하였으며 항암을

가두배추(cabbage) 즉 《캐비지》라고 불렀다.

비타민U는 위에 흡수되면 위점막이 강해지고 케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며 단번질의 소화흡수와 세포의 핵에 있는 염색체구조를 돕는 파괴된 세포를 복구하는 촉진역할을 한다.

이로부터 가두배추는 위케양이나 위염, 간기능개선과 해정에 특효가 있으며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장수식품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어느 한 나라에서는 항암효과가 있다는 여러가지 남새들을 분석하였는데 가두배추가

단연 《왕좌》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가두배추를 날것으로 먹으면 매운맛이 나는데 이 성분은 발암물질과 같은 유독성 물질을 분해하는 작용을 백혈구의 활성을 도와 암세포를 파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가두배추에는 항산화작용을 하는 비타민C가 도마도보다 2배정도 많고 β-카로틴과 클로로필, 스테롤 등과 같은 암에방물질이 함유되어있다.

이밖에도 가두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K는 뼈를 강화하여 골소추증을 막아주며 섬유질의 함량이 높아 결장암, 담석증, 당뇨병치료에 좋다. 가두배추는 유유 못지않게 흡수가 잘 되는 알카리성식품으로서 배설효율과 함께 오장과 관장을 보호하고 귀와 눈을 밝게 하는 작용도 한다.

총체적으로 가두배추는 섬유질, 비타민 A, B, B₂, C, U, K 와 디아스타제, 펩신, 트립신, β-카로틴 등 사람의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갖추어있는 남새이다.

본사기자

7월의 절기

7월의 절기에는 소서와 대서가 있다.

소서는 하지와 대서사이 에 있는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7월 7일경에 있게 된다. 소서는 여름의 더위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때부터 장마와 고온이 겹쳐 습한 무더위가 계속된다.

이때부터 건조를 하 지후에 폭식을 심으면 결실시 안된다고 하면서

조, 수수를 비롯한 알곡작물을 하지전에 다 심었다.

대서는 소서와 립추사이 에 있는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7월 24일경, 음력으로는 6월에 있게 된다.

대서는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라는 뜻이다.

이때에는 낮게 뜬 구름이 동서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장마가 계속되는데다가 기온이 더욱 높아져

습한 무더위가 지속된다. 근면한 우리 선조들은 무더위속에서도 논과 밭의 김을 매는 한편 풀을 베어 다음해 농사를 위한 거름을 착실히 마련하였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사람들은 참외나 수박을 찬물에 담그어두었다가 저녁에 먹었다.

올해의 소서는 7월 7일, 대서는 7월 22일이다. 본사기자

습한 무더위가 지속된다. 근면한 우리 선조들은 무더위속에서도 논과 밭의 김을 매는 한편 풀을 베어 다음해 농사를 위한 거름을 착실히 마련하였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사람들은 참외나 수박을 찬물에 담그어두었다가 저녁에 먹었다.

올해의 소서는 7월 7일, 대서는 7월 22일이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단편소설

기러기 (3)

글 김승기, 그림 김윤일

《이젠 점심때가 되어오니 식사를 드릴까요?》

김향순은 정윤기의 《1인기차시위》에서 자기마한 불행이라도 있을세라 각근히 마음씨었다.

《함께 하자구. 사람이 먹어야 산다는 생활의 진리는 가장 단순하고 초보적인데 부처님은 모르고계신단니까.》

《호호호... 아무 말씀이나 다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신단니까요.》

《그렇다면 그 치사를 사양하지 않겠네. 허허허...》

차창밖에 김향순이 준비한 간단한 음식가지들이 올려졌다.

정윤기는 김밥을 맛있게 먹으며 말했다.

《향순이의 음식솜씨는 누구도 못따를거야. 안해가 만들어주는 음식, 마음통하는 친구들끼리 정답게 나누는 음식...》

사람이 죽어서는 안되기에 먹지 않으면 안되지. 그런데 성찬보다 더 끔찍한 게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 음식이 있다는걸 향순이는 다 모를테지?》

정윤기의 화제가 어디로 가지별을가 접지기를 하며 김향순은 부드러운 눈매에 미소를 담고 고개만 끄덕이였다.

《난 총정도 친친태생일세. 내 고향은 송림속에 자리잡은 살기 좋은 마을이었어. 무던히 장난도 세웠었지. 여름에는 강가모래밭에서 못하는 놀이 없었단네. 그통에 서당숙제를 못해서... 허허, 날 대신해서 나와 함께 장난을 치던 내 친구가 가끔 종아리를 맞았소. 그 친구는 서당훈장의 손자였다네. <이놈아, 삼강오륜을 알아야 집안에서 효자되고 나라앞에서 충신이 될게 아니냐?> 버들회초리가 장면

에 뺨을 그릴 때면 속대무른 그 친구는 영영 울곤 했지. 세월이 흘러 우리는 송림이 우거진 고향마을이 아니라 피비린내 풍기는 감옥, 살아서 못나온다는 대전교도소에서 만났지.》

정윤기는 스스로없이 김향순의 넋을 이끌어 자기가 살아온 옥중생활의 토막안에 새워놓았다.

날이 밝고 해가 지는것을 알수 없는 산인간들의 무던같은 대전교도소. 여기서는 흐르는 날과 달도 바람벽에 금을 그어가며 새겨야 할수 있다. 수인들에게 차려진 공간에는 빛이 스며드는 바늘구멍만 한 틈도 없다. 감옥복도에서 울리는 간수의 구두발소리, 돼지먹마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을수 있는 인간세상의 소리이다. 대전교도소의 간수들은 하나같이 포악무도한 야수들이다. 하지만 이들도 수인다투기에 맥이 빠져서 날이 밝으면 진저리를 친다. 낮은 낮토로 비명소리도 약마구리같은듯 하는데다 밤은 밤대로 시체들을 날라야 하니 간수들도

고역을 치르는셈이다. 대전교도소 사동에는 《늑대》라는 별명을 가진 간수가 있었다. 이자는 결상에 앉아 끄덕끄덕 즐다가 철창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에 화답답 놀라 왜가리처럼 지른다. 《뉘야? 어느 늑이야? 신새벽부터 지랄을 부리는 늑이야...》

《개자식! 308번! 살기가 귀찮아서 발광이나?》 간수가 발을 구르며 살기를 내뿜지만 수인은 두주먹으로 그냥 철창을 틀어쥐고 《늑대》를 노려보았다. 아무리 사납게 으르렁거리어도 수인은 끄떡하지 않았다. 간수는 흰자위가 희뜩거리는 두눈을 푹푹이 뜨고 감방안

고 고향을 치는것이다. 《308번, 미쳤는가? 응? 아니면...》

《내 번호를 똑바로 불러라! 내 번호는 1010이다. 천 - 공 - 십!》

《야, 이 미친놈아! 네 가슴에 패쪽처럼 단 번호는 뭐구 1010이란것은 또 뭐야?》

《1010번, 정윤기다!》

《가만가만, 이제 한해에 한번씩 발작하는 지랄이구나!》

《그렇지?》

《이놈아, 미쳤한 사람보구 지랄이러우? 내 이름은 정윤기, 1010번이다!》

《네놈이 일부터 소란을 피우는줄 안다. 교도의는 네가 지랄병이없다고 진단했잖아. 알겠어?》

《그렇다! 나는 1010번이다.》

《이 미친놈아, 수인번호는 교도소에서 하사한다. 네가 감히 제멋대로 바꾼단 말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다. 통일을 위해 싸우는 애국자를 모독하지 말라!》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늑대》는 감방상태를 확인하

을 살펴보았다. 하루밤을 지나보면 한통은 죽거나 미치기도